

# '지황1호' 적정 피복 · 식재 거리

## 폭90cm 이랑에 흑색비닐 피복 한포기 20cm 간격 2줄로 심어

재래종보다 3~4배 가까이 수량이 많은 신품종 지황(지황1호)의 심는 거리와 비닐 피복재배 효과가 구명됐다.

충북도 농촌진흥원에 따르면 생육이 왕성한 <지황1호>는 폭 90cm의 이랑을 짓고 흑색비닐을 피복한 뒤 한포기당 20cm 간격으로 2줄로 심으면 10a(3백평)당 수량이 4천1백 84kg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이랑을 1백20cm 폭으로 짓고 10cm 간격으로 3줄로 심을 경우 10a당 3천9백1kg, 90cm폭 이랑에 2줄로 10cm 간격으로 백백이

심으면 평균 3천5백41kg 정도로 수량이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도농진원이 90cm이랑에 10cm간격으로 2줄로 <지황1호>를 심고 비닐 피복 여부에 따른 수량차이를 분

석한 결과 흑색비닐피복을 10a당 최대 3천5백63kg 생산했으나 피복하지 않을 때는 2천9백43kg에 불과, 수량이 52%까지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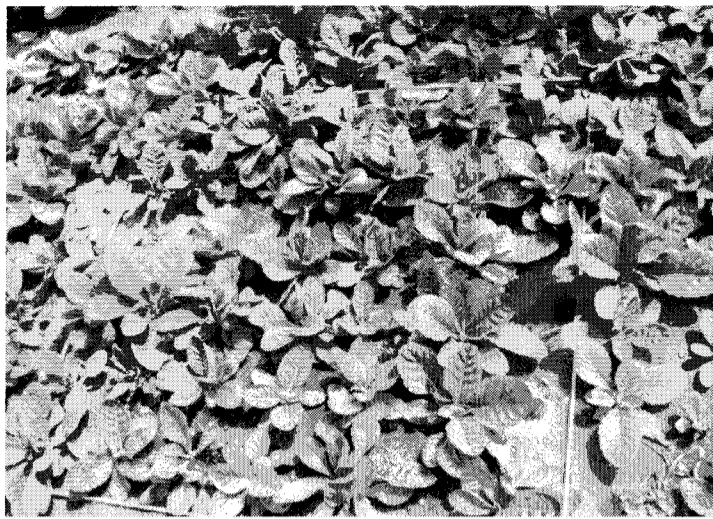
92년 중국에서 도입된 품종을 선발한 <지황1호>는 남부평야지가 재배적지로 생산기반 붕괴위기에 처한 지황재배를 되살릴 품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삼지구엽초 꺾꽂이법 개발 뿌리줄기 6cm이상 잘라 펠라이트상토 육묘

한약재나 드링크류의 건강음료에 널리 쓰이는 삼지구엽초(음양곽)의 번식과 식재방법이 구명됐다.

경기도 농촌진흥원에 따

르면 삼지구엽초는 뿌리줄기를 6cm이상의 크기로 잘라 펠라이트 상토에 육묘할 경우 50% 이상 싹이 트고 뿌리줄기당 식뿌리도 33개



이상 나올 뿐만 아니라 포장 활착율도 90% 이상으로 나타났다.

도농진원이 꺾꽂이에 알맞은 뿌리줄기의 길이를 조사한 결과 2~4cm 길이로 잘라 꺾꽂이 할 때는 싹이 25~33%정도 밖에 트지 않고 꺾꽂이한 뿌리 줄기당 새뿌리수도 16~21개로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펠라이트 상토에서 기

른 모종은 40~30cm 간격으로 옮겨심으면 10a(3백평)당 1년차 4kg, 2년차 18kg, 3년차 48kg 등 3년 동안 70kg 정도를 수확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4월상순 옮겨 심을 경우는 3년 동안 43kg만 수확할 수 있어 봄보다는 가을에 옮겨심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 삼백초 다수확 재배법 개발 뿌리 중간부위 3마디 잘라 종근 사용



최근 약용 및 건강음료용 작물로 개발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삼백초는 뿌리의 중간부위 3마디를 끊어 종근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알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 농촌진흥원이 삼백초 종근을 뿌리 끝부분과 중간부분, 뿌리 윗부분을 각각 1마디, 2마디, 3마디씩 잘라 심은 결과 가운데 부분 3마디를 파종했을 때가 수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도농진원에 따르면 삼백초 종근중간부분을 3마디로 잘라 이랑폭 60cm, 포기간격 25cm로 심은 결과 10a(3백평)당 마른잎 생산량이 2백 2kg으로 수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뿌리 끝부분 3마디를 끊어 심어도 마른 잎 1백 93kg이 생산돼 비교적 수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뿌리중간이나 끝부분을 막론하고 1마디나 2마디만 잘라내 심을 경우 3마디를 심을 때 보다 수량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

졌다. 이에 대해 도농진원 작물과 박부규 연구사(52)는 "일선농가의 경우 중간부분 3마디만 절취하기 곤란한 만큼 뿌리 위치에 상관없이 3마디를 끊어 재배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 '물골안 영지음료' 시판 남양주 수동농협 작목반

경기 남양주시 수동농협(조합장 이원수) 물골안 영지작목반(반장 이정렬)은 영지음료를 개발, 본격적인 판매에 나서고 있다.

7명으로 구성된 물골안 영지버섯 작목반은 영지버섯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3천여평의 버섯 재배사와는 별도로 지난해 영지버섯 가공공장을 건립하고 올해부터 작목반에서 생산한 고품질 영지와 대추·감초·동굴레 등 한방재료를 원료로 한 <물골안 영지음료>를 생산하게 된 것.

농림부 전통식품 지원업체로 지정된 영지작목반의 가공공장은 혈액순환, 소화력촉진 등의 효능이 있는 영지음료를 남양주지역 특산물화한다는 목표아래 농협 하나로마트를 통해 판매하는 물론 서울과 남양주지역은 신청만 하면 택배를 이용해 배달해 주고 있다. 종류는 페트용기로 포장된 1.5l, 0.5l 등 두가지다.

### ▶▶▶ 한방업계 최초 Q마크 획득 - 태성제약기계

## "완벽하게 만들어서 제값 받자" 한방기계업계 최초로 리콜제 도입 실시



대표 김상영(45세)

한방기계업계에서 국내 최초로 Q마크를 획득한 태성제약기계(대표 김상영).

지난 92년 설립된 이래 주로 한방기계만을 전문으로 제작해 온 태성제약 기계가 이번에 Q마크를 획득한 제품들은 한약재 가공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직각절단기, 자동원반기, 자동칼연마기, 세척기 등 총 17개 품목.

이들 제품은 대표 김상영씨가 25년간의 경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철저한 기업이념속에서 탄생된 성과물들로 기존의 기계들이 갖는 크고 작은 문제점들을 보완, 내구성과 실용성을 높임으로서 고품질화한 것이다.

기름이 자동으로 주입되는 직각절단기는 밀갈 재질을 바꿔 기존 기종에 비해 약재 끼임현상을 보완했다. 스위치만 누르면 자동으로 편절단되는 자동원반기는 콤푸레서(공기압축발생기)와 자동감지 시스템을 설치 잔류약재가 전혀 없이 절

단됨은 물론 약재가 절단될 때만 자동으로 물이 나오도록 보완함으로써 작업의 효율성을 높였다. 자동칼연마기는 기존의 수동방식에서 벗어나 칼날 경도를 일정하게 연마할 수 있도록 자동화한 것으로 소형에서부터 3백50mm까지 연마 가능하다.

"보다 완벽하게 만들어서 그만큼 제값을 받자"는 생각으로 김사장은 매년 5~6천만원씩을 완벽한 기계개발을 위해 투자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는 부품정밀가공을 위해 1억2천만원을 투자했다. 때문에 태성의 기계들은 정확한 정밀가공으로 기계고장 발생시 기계전체를 교환할 필요없이 호환성있게 부품교환만으로 해결이 가능할 뿐 아니라 어디 한군데 망가지면 기계전체를 실어오는 번거로움과 수고를 덜 수 있다는게 김사장의 설명이다.

또 생산농가들의 편의를 위해 기계값도 3~4회 분할지불이 가능하고 판매시 직배는 물론 고장수리시에도 직접 방문 수리해 주고 있다고.

김상영 사장은 또한 한방기계업계에서 최초로 리콜제를 도입 실시해오고 있다. 판매한 기계에 한달이내 문제가 발생하면 새 기계로 교환해 줄 뿐 아니라 1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지역별 무료 아�프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것.

"철저한 사후관리체제를 바탕으로 한양심적 기업이념으로 신뢰를 쌓아나가는 것이 장기적 안목에서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는 길"이라 믿고 있는 김사장은 이번 본격적으로 해외시장 공략에도 나설 방침이다. <문>